

企劃論文

한국학 연구방법의 모색: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중심으로

윤택림*

I. 문제제기 한국학 방법론은 있는가	III.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통한 한국
II. 한국학 연구의 지형도와 그 연구	문화연구
방법들	IV. 맺는 글: 한국학 연구방법의 정립을
	향하여

I. 문제제기: 한국학 방법론은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학문체계가 성립한 이후로 다양한 학문들의 연구주제, 범주, 영역,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 매우 빈약한 것 같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서구의 이론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각 학문분야들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연구주제, 대상), 또는 연구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1970년대부터 한국학이라는 학문의 정립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방법에 대한 논문들은 몇 편 되지 않는다.¹⁾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학이라는 학문 자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화인류학

의 정체성이 모호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까지 논의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학문이던 간에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되는 필요충분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방법의 설정이다.²⁾ 한국학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 대상, 시각 외에도 연구방법의 정립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학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연구방법이라고 해도 기존의 인문, 사회과학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또는 학제간 연구와 비교문화연구라는 정도에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어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에 맞는 고유한 연구방법의 개발을 주장하기도 하지만³⁾, ‘어떻게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제안은 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한국학 방법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학의 미래를 위하여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한국의 학문 전반에서뿐만 아니라, 한국학 내에서 연구방법논의의 빈곤함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우선은 한국학 내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의 빈곤의 이유를 한국학 연구의 지형도를 조명해보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학의 정체성을 한국문화학으로 설정하면서, 종래의 한국학 방법론 논의에서 한 단계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의 하나인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가지고 한국학 연구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한국학 연구방법론을 다룬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정도이다.

강봉수, 「한국학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1996).

김철진, 「한국학 연구의 방법론적 반성」, 『한국학 연구』1(1982), 동덕여자대학교

박이문, 「한국학의 방법론」, 『정신문화』, 12(19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최준식, 외,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의 개념과 영역 및 방법론」, 『국제한국학회지』 1(1996).

2) 강봉수, 앞의 글, 177쪽.

3) 강만길,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한국학 연구의 방향」, 『한국학논집』, 22(1995), 계명대학교 5 쪽

II. 한국학 연구의 지형도와 그 연구 방법들

1. 한국학 연구의 지형도

한국학의 태동과 그 발달해온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한국학이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 찾기라는 국가적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⁴⁾ 구한말부터 증가하는 국가적 위기의식 속에서 고양된 민족의식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각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이르러 주권 회복을 위한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변환되었고, 한국문화연구는 우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이 되었다.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어 한국학 연구는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학이 국문학, 역사학 등 전통 학문과 구분되는 한국학 고유의 영역이나 대상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한국학이란 매우 포괄적 의미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학문 분과에 상관없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각자의 학문분과 내에서 한국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 모두 한국학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⁵⁾ 따라서 연구 주제나 대상의 설정, 연구방법도 각 학문 분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학의 학문으로서의 성립, 발전에 매우 혼란함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학 특유의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은 한국학을 독립적인 학문분과로서 자리 매김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국학이 단일민족, 단일문화주의에 기반하여 대외적으로 일본, 중국, 서구와 차별화되는 한국민족, 문화의 개별성, 독특성을 밝히고자 한데서 기인한다. 한국학은 우리 고유의 문자나 언어에 대한 연구 혹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확인 내지 재해석 등의 작업⁶⁾을 통해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단일하게 정형화된 문화로서의 위상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의 개별 문화 항목들은 그들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각 학

4) 문옥표,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 집(1995), 73 쪽

5) 문옥표 앞의 주, 같은 쪽

6) 이제호, 「한국학연구: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11 권 1 호(1988).

문분과에 의해서 연구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국문화라고 하는 통합적인 개념이 없이 개별적인 한국학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학의 성립 및 발전 과정을 볼 때, 한국학의 특징은 양가성(ambivalence)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부터 국학으로 발전해온 한국학은 해방이후로는 1980년대까지 민족문화연구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사·철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으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사회과학이 발전하였고, 1980년대 말 88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학이라기 보다는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라는 위상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자들의 한국연구가 한국학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적인 한국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전지구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어져서 국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의미로서의 한국학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학의 문제는 인문학적 한국학인 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의 관계가 소원하고 서로 각자의 길만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⁷⁾ 그래서 이 두 부류의 한국학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통합의 다리가 놓여지지 못한 것 같다

한국학이 국학이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건 간에 이 종류의 한국학의 특징은 둘 다 일종의 자문화 부활운동(nativistic movement)의 하나이고, 또한 상대적인 학문이라는 것이다. 자문화 부활운동이 문화적 위기 속에서 문화적 전통들을 복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학·인문학적 한국학은 19세기말에서 시작된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외세에 대한 저항에서 국수주의적으로 민족문화, 유산, 역사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적 한국학은 20세기 말 문화적 경계들을 위협하는 세계화, 전지구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한국학은 각각 다른 시기에 대외, 외세에 의한 타자화(othering)에 대한 저항으로서 성립한 학문으로, 둘 다 모두 자문화의 위기 의식 속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학은 상대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⁸⁾ 한국학을 수용하고 필요로

7) 이상주,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와 한국학의 전망」, 『정신문화연구』, 24권 3호(2001), 306쪽

8) 최준식, 외, 「좌담회: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의 개념과 영역 및 방법론」, 『국제한국학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학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문화는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타자(other)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문학적 한국학이건 사회과학적 한국학이건 모두 자아와 타자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한국문화를 생산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학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대립, 그에 따른 전통과 현대의 대립이라는 갈등구조는⁹⁾ 인문학적 한국학 내지 국학과 사회과학적, 내지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 서로 매우 다른 성향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상, 이 두 종류의 한국학은 서로 같은 구도 내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종류의 한국학에게 공통의 과제는 한국의 근대 사회 성립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던 타자성의 구도를 벗겨내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자리매김(positioning)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종류의 한국학에 속해 있는 다양한 제 분과학문의 연구대상을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문화를 설정하고 한국학을 종합적인 ‘한국문화학’¹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문옥표는 미국학과 같이 ‘한국문화학’으로서 한국학을 재개념화하고, 이 때 한국문화는 한 민족 또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환경과의 적응 관계에서 적절한 행위를 취하게 할 수 있는 의미체계로서 이해될 것을 주장한다.¹¹⁾ 이것은 한국학을 하나의 지역연구로서 세계 속에 타문화, 국가들과의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 한국문화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 내의 다양한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그것들을 문화라는 개념 속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2. 한국학 연구방법들

이제까지 한국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연구방법들을 살

1(1996), 14 쪽

9) 강성위, 「한국학의 개념과 논리의 문제들」, 『정신문화』, 3권 3호(1980), 190~195쪽.

10) 문옥표,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 집(1995), 74 쪽

11) 앞의 주, 80쪽.

펴보면 첫째로 인문학적 연구방법과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학의 양 대 줄기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사용되어온 연구방법들을 보면, 인문학은 해방이후 문, 사, 철 중에서도 국사학의 주도 아래 국학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사학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문헌고증 중심의 사학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가치 중립적인 방법론에 한정되어서 전근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정되어왔다. 반면 사회과학적 한국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여왔다. 그런데 사회과학적 한국학은 그 현재성이 객관성, 비판성보다는 체제긍정적 방법론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¹²⁾ 그래서 한국문화를 다루는 국학과 사회과학 사이에 방법론적으로도 문헌고증적 해석학과 양적 방법론이라는 일종의 방법론적 차별성 또는 단절이 있어왔다. 인문학적 한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이라는 한국학의 양면성이 바로 연구방법론에서도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한국학 연구 방법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누는 방식 외에 통합적인 한국학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 왔다. 이제까지의 한국학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¹³⁾ 첫 번째 입장은 한국학의 연구방법의 특징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한국학 고유의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의 인문, 사회과학적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지는 주장이다. 세 번째 입장은 한국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하여 한국학의 독특한 연구 방법의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각 학문분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 학문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학제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한국문화는 다면적, 다층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학이 학제간 연구인 까닭은 현실적으로 각 학문분과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하면 한국학 연구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국학이 한국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제간 연구는 한국 또는 한국문화를 다면적, 다층적으로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

12) 강만길, 앞의 글, 19쪽.

13) 강봉수, 앞의 글, 196~197쪽.

만 학제간 연구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총체적인 한국문화의 이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학제간 연구의 다양성은 오히려 한국학의 성립에도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문화를 연구하는 미국학에서도 나타난다. 미국학이 학제간 연구로서 연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제간 학문분야로서의 미국학이 다른 학문 분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⁴⁾ 미국학이 미국적인 것과 전통적인 학문분과 내에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주제들을 학제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분야라고 해도, 미국이라는 지역의 역사·정치·문학 등 전통적인 학문분야에서 수행하는 ‘지역연구’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¹⁵⁾ 이러한 문제점은 자국학으로서의 한국학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한국학도 한국문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이지만, 또한 한국 밖에서 한국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지역연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학제간 연구와 함께 한국학 연구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comparison)이다.¹⁶⁾ 비교문화연구는 국학에서건, 사회과학적 한국학에서건 대체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동아시아문화권 내에서 한국·중국·일본 문화의 비교는 국수주의적이라는 국학의 자문화중심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한국문화를 객관적으로 지역문화로서 이해하게 하는데 기여해 왔다. 비교문화연구는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국문화의 일반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한국학 연구의 필수적인 연구방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비교문화연구에서 항상 비교의 수위가 문제가 된다. 또한 비교문화연구는 각 문화들의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입장은 새로운 한국학 연구 방법을 창출해 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문옥표는 한국학을 한국문화학으로 상정하고, “ ‘문화학’으로서의 한

14) 은기수,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정신문화연구』 25 권1 호 (2002), 168~169 쪽

김경일,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1995). 이 논문에서도 한국학과 마찬가지로 지역연구에서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15) 은기수, 앞의 글, 170쪽.

16) 최준식 외, 앞의 글, 19쪽.

국학에 접근하는 일차적 방법은 ‘한국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일관된 총체로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것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이론이나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17) 또한 이희수는 기존의 학제간 연구는 통합적인이 아니라 모자이크적이라고 비판하고, “비교문화적, 상대론적, 총체론적 방법을 다 동원하되 기존 방법론에 대한 관점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8) 또한 최봉영도 한국학을 전공했다라도 기존 분과학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방법론의 전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이들의 논의도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의 창출을 주장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연구방법론의 논의에서 방향 제시는 시작일뿐이고, ‘어떻게’의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주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학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III.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통한 한국문화연구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학을 한국문화학으로 보고, 한국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적 방법(ethnographic method)을 가지고 ‘어떻게’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필자 자신이 인류학자로서 다른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익숙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문화기술지적 방법이 기존의 인문학적 한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을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사회과학에서 이제는 조금씩 질적 연구방법으로 관심이 바뀌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양적 연구방법이 다룰 수 없는 질적인 자료에 대한 해석을 질적 연구방법이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질적 연구

17) 문옥표, 1995, 74 쪽

18) 앞의 글, 20쪽

19) 앞의 주.

방법이 양적 연구방법을 대체하는 더 좋은 연구방법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재와 현실은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질적 연구방법이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²⁰⁾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

문화기술지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이다. 문화기술지를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행위와 개념이 놓여있는 맥락인 연구 대상의 일상적 삶에 참여하거나 관찰하면서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을 말한다. 질적 연구방법에는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 생애사, 현상학,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 이들 다양한 질적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적인 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복합적 다층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둘째로 이들 질적 연구 방법들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융통성 있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로,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속한 이해를 창출해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피상적인 유형, 추세나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보다 강조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양화 기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분석이 핵심적이지 않다.²¹⁾

인류학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체류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 현지조

20) 질적연구방법, 특히 인류학적 현지조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 「질적연구방법과 젠더」, 『한국여성학』, 13권 2호, (2002)을 참고하길 바란다

21) 메이슨, 제니퍼, 『질적 연구 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1999), 20 쪽

사(fieldwork) 자체를 문화기술지적 연구(doing ethnography) 라고 하기도 하고 현지조사의 결과물을 문화기술지(ethnography)라고 한다.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질적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조사라는 용어보다는 문화기술지라는 용어가 타학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때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타학문에서 말하는 문화기술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류학적 현지조사가 장기체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기체류의 여부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을 한국학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되기 될 수 있다. 현지조사가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에 타문화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인류학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학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종래의 인문학적 한국학 연구자들이 사회과학적 한국학 연구자들에 제기 했던 문제점, 즉 서구의 방법론을 그대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다는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에서도 자문화 내에서 양적 연구방법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문화기술지적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의 서구 인류학에서 타문화연구 뿐만 아니라, 자문화 연구도 증가하게 되었고, 타문화 연구도 비서구사회에서 와서 인류학적 훈련을 받은 비서구인류학자들에 의해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래서 탈식민시대(postcolonial period)에 있어서²²⁾ 사실상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는 매우 상대적인 것이 되어지고 있고, 문화적 경계(cultural boundary)는 계층적, 지역적, 세대적, 성별적으로 자문화 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²³⁾ 따라서 현지조사,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단순히 타문화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학도 한국학자가 수행할 경우는 자문화 연구가 되고, 외국학자가 수행할 경우는 타문화 연구가 된다. 즉 한국학 자체에 이미 자문화적 입장(국학)과 타문화적 입장(지역연구)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학자건, 외국 학자건 간에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한국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된다.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하나의 한국학 연구방법으로

22) 김성래, 「탈식민지시대의 문화이해: 비교방법과 관련해서」, 『비교문화연구』, 창간호(1993).

23) 윤택립, 「문화의 탈지역화와 한국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5 권 3 호(2002), 269 쪽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맥락 중심(context-oriented)의 연구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한국학 연구에 적용할 때, 한국학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맥락중심의 연구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한국학을 다른 학문분과와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한국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적인 한국학을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한국문화의 총체성이다. 즉 한국문화는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리, 종교, 민속 등 각 학문분과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각 학문분과를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문화의 총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론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맥락 중심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맥락(context)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시적(synchronic) 맥락이고 또 하나는 통시적(diachronic) 맥락이다. 공시적 맥락은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 전반 각 분야의 관계 양상과 자리매김(positioning)을 말한다. 통시적 맥락은 한 사회가 과거로부터 특정시기까지 대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가 내부적으로 형성, 발전 되어온 과정(process)을 말한다. 따라서 맥락중심의 한국학 연구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의 형성,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함과 동시에 특정 연구대상이 현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기술지적 방법은 행위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참여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맥락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연구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학자는 자문화 속에서 참여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학자는 타문화 속에서 참여관찰을 하여 자신이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 연구 대상의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문자를 통한 이해보다 체험에 의한 이해라야 더 정확할 수 있다”.²⁴⁾ 그래서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같이 참여관찰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문화를 연

24) 이상주, 앞의 글, 306쪽.

구하는 한국학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관찰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관찰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학자가 자문화를 객관화할 수 없다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학자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한국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예리함은 바로 그들이 한국문화를 타문화로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하지만 외국학자도 충분한 참여관찰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한국문화의 공시적, 통시적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어설픈 문화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한국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비교문화적 시각이다. 한국문화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문화에 거리를 둔다는 것은 비교문화적 시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타문화를 통해서 자문화의 이해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내에서 한, 중, 일의 비교 문화연구와 더 나아가서 세계체제 내에서 한국을 자리 매김하는 것은 맥락중심의 한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한국문화의 통시적, 공시적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소위 총체성을 주창한 기능주의가 비판받아왔던 문제점-몰역사성 내지는 변화를 다루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통시적, 공시적 맥락을 밝히게 되면 사회변동 내지 문화 변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패턴이나 구조로서의 한국문화가 아니라, 역동성을 가진 한국문화가 바로 맥락중심의 연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3. 행위자 중심(actor-oriented)의 연구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통해서 한국학 연구를 할 때, 한국학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다. 참여관찰, 심층면접, 생애사와 같은 문화기술지적 연구 기술(techniques)들은 행위자, 즉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국문화의 이해를 얻게 해준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국문화의 맥락잡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한국문화를 이해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사용된 양적 연구방법인 서베이는 한국 연구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였다. 반면 문화기술지적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인 사

25) 앞의 글, 305쪽

람들과 집단들의 일상적 삶 속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대상인 사람들과 집단들, 즉 행위자 중심의 연구가 가능하다. 외국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할 때도 연구대상인 특정 한국인들의 삶에 참여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행위자 중심의 연구가 한국학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때, 연구자가 한국인이던, 외국인이던 간에 문화적 상대주의에 기초하여 한국인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주체인 행위자로서 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류학적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학 연구자는 현지민인 한국인들과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만남(cultural encounter)을 하게 된다. 이 문화적 만남은 그 대부분이 참여관찰로 이루어지고, 이 만남에서 연구자와 현지민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연구자와 현지민 간의 대화는 바로 연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자문화 또는 타문화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데 단순히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문화에 속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한국인의 다양성 즉 계층적 세대적, 지역적, 성별로 그 한국인들을 한국사회 내에서 자리 매김(positioning)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의 단일성이라는 명분 하에 한국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단선적인 한국문화의 이해를 낳게 된다.

한국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기술지적 방법의 하나가 바로 구술사, 생애사 연구이다. 구술사와 생애사 연구는 특정 한국인들의 주관적 개인적 경험을 역사화할 수 있는 연구방식으로, 한국인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구술사, 생애사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구술자의 삶의 과정을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 한국인의 개인적 삶과 한국문화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방식이기도 하다.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술자료의 특성 때문에

대표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다른 사회과학 연구에서, 구술자료는 사적(史的) 자료로서의 가치를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역설적으로 구술자료의 가치는 바로 그 주관성과 개인성으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구술사는 바로 개인을 통하여 사회와 구조를 바라보는 연구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술사는 다른 사회과학연구에서 다루기 힘든 개인의 사적, 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고,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의 삶은 바로 그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또한 역사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구술사의 주관성과 개인성은 민족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중앙 중심적, 국가전체사적(national history) 역사연구에서 가려지는 개인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바로 구술사의 강점인 것이다.²⁷⁾

구술자료는 대체로 구전, 구술 증언, 구술 생애사 이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구전(oral tradition)은 구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지는 구술로 되어진 기록을 말한다.²⁸⁾ 한국과 같이 문자 기록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역사는 바로 기록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구전은 비공식적이고 주변적인 구술 기록으로 취급되고 있다. 구술 증언(oral testimony)은 구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나 제주도 4.3 과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회고를 하여 진술하는 구술들은 구술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전이나 구술 증언과 달리,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간접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도 포함될 수 있다. 구술 생애사는 史的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6) Wachtel, Nathan, "Introduction", Marie-Noelle Bourguet, Lucette Valnesi and Nathan Wachte, eds., *Between Memory and Histor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1, p.3.

27) 윤택립,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1993), 290 쪽

28) Vansina, Jan, *Oral Tradition as Histor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구술증언과 구술생애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증언과 삶이야기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그들의 삶의 경험은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 지워져야 하고,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술사 생애사는 특정 한국인이라는 개인들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나 민족이라는 거대 개념에 묻혀 버릴 수 있는 소외 집단 계층 개인들을 한국역사와 문화의 행위자로서 드러낼 수 있는 연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한국인들의 삶의 경험을 역사화시키고, 그것을 한국문화의 맥락 속에 위치시킬 때, 구술사, 생애사는 또한 성별사(gender history)가 될 수 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될 때, 그 한국인이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서 다른 한국문화의 이해가 나오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다양한 주체의 자리 매김(subject-positioning)은 그 한국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해석적(interpretive) 연구

마지막으로 한국문화학으로서 한국학은 해석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문화기술지적 방법은 사실상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연결해 주는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기술지는 사회과학 방법론의 하나이지만 연구의 목표는 법칙추구가 아니고 해석(interpretation)이다. 인류학적 현지조사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로부터 문화의 이해를 도출해내는 귀납적 작업이다 또한 인류학자가 참여 관찰한 것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술(description)해내지만, 그 기술은 하나의 번역(translation)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설명(explanation)이 된다. 그래서 문화기술지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특수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²⁹⁾

29) Peacock, James, *The Anthropological L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08.

현재 인문학적 한국학이 국수주의적 전통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사회과학적 한국학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구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무비판적으로 한국에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문학적 한국학의 주관성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의 객관성을 연결시켜서 한국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문화기술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통계를 사용하던, 문헌자료를 사용하던, 살아있는 한국인을 통해서건 한국학의 목표는 한국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해석일 것이다. 통계수치도 결국은 그 수치의 의미를 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문헌자료도 연구자와 문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해석의 작업이며, 문화기술지도 연구자와 한국인간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한국학 연구가 어떤 자료를 사용하던 간에 한국학 연구는 해석적 연구이며, 이 해석적 연구를 위해서 문화기술지적 방법은 보다 심층적인 한국문화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IV. 맺는 글: 한국학 연구방법의 정립을 향하여

이제까지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다양한 한국학 연구를 해 왔고, 또한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와서, 한국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국학의 수요와 필요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문학적 한국학, 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라는 양 대 줄기는 한국학의 학문적 심화와 학문적 확산을 위하여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학으로서 그 총체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인문학적 한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이 함께 그 총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방법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학의 궁극적인 목표, 즉 인문학적 한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에게 공통의 과제는 한국의 근대 사회 성립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던 타자성의 구도를 벗겨내는 것, 한국문화의 탈식민(decolonization)이 아닌가 한다. 또한 한국문화를 이

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사는 개개인의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해주고, 그들이 문화의 주체로서 한국문화를 창조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학 연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학을 한국문화학으로 정의하고, 그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맥락 중심의 연구, 행위자 중심의 연구, 해석적 연구로 보고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적 방법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인문학적 한국학과 사회과학적 한국학의 거리를 메우고 새로운 한국학 연구방법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만길,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한국학 연구의 방향」, 『한국학논집』 22, 1995, 계명대학교 1~7 쪽.
- 강봉수, 「한국학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1996, 173~201 쪽
- 강성위, 「한국학의 개념과 논리의 문제들」, 『정신문화』 3 권 3 호 1980, 32~38 쪽
- 김경일,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 1997, 45~88 쪽
- 김성례, 「탈식민지시대의 문화이해 비교방법과 관련해서」, 『비교문화연구』 창간호 1993, 79~111 쪽.
- 김철진, 「한국학 연구의 방법론적 반성」, 『한국학 연구』 1, 동덕여자대학교, 1982, 141~145 쪽.
- 문옥표,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 집 1995, 49~84 쪽
- 박이문, 「한국학의 방법론」, 『정신문화』 12, 1982, 72~85 쪽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집, 1993, 273~294 쪽.
- 윤택림, 「문화의 탈지역화와 한국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제 25 권 3 호 통권 88 호, 2002, 257~282 쪽.
- 윤택림, 「질적연구방법과 젠더: 여성주의 문화기술지의 정립을 향하여」, 『한국여성학』 18 권 2 호 2002.
- 은기수,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정신문화연구』 25 권 1 호 통권 86), 2002, 155~173 쪽.

- 이상주,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와 한국학의 전망」, 『정신문화연구』24 권 3 호 통권 84), 2002, 301~314쪽.
- 이재호, 「한국학연구: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11권 1호(통권 34호), 1988, 133~155쪽.
- 메이슨, 제니퍼, 『질적 연구 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 1999.
- 최준식, 외, 「좌담회: 한국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의 개념과 영역 및 방법론」, 『국제한국학회지』, 1996, 13~24쪽.
- Peacock, James, *The Anthropological L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Vansina, Jan, *Oral Tradition as Histo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Wachtel, Nathan, "Introduction", Marie-Noelle Bourguet, Lucette Valnesi and Nathan Wachtel, eds., *Between Memory and Histor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1991, pp.1~15.

주제어

한국학 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 문화기술지, 문화학